

慶尚北道 盈德郡 丑山面 景汀1里

柳氏夫婦 生活用品

The households of Yoo, Young-Choon and Kim, Soon-Ja's Family

Gyeongjeong1-ri, Chuksan-myeon, Yeongdeok-gun,

Gyeongsangbuk-do

沈一鍾

Sim, Il-Jong

집필자 심일종(민속연구과 연구원)
조사자 심일종 · 이지혜 · 조현정(민속연구과 연구원)
사진촬영 심일종, 조현정(민속연구과 연구원)
편집 장장식(민속연구과 학예연구관)
안정윤(민속연구과 학예연구사)
강정모(민속연구과 연구원)
발행일 2009년 5월 29일
발행인 신광섭
발행처 국립민속박물관
(110-82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길 35
02-3704-3114 www.nfm.go.kr

제작 (주)디자인인트로 Tel : 02-2285-0789 www.gointro.com
디자인 박찬호 · 안태영 · 권진희 · 손동희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030-01
ISBN 978-89-92128-53-7 94380
978-89-92128-49-0 (세트)

* 이 책에 실린 사진과 글의 무단게재를 금합니다.

- 일러두기**
- 이 책은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경정1리에 거주하는 유영춘 · 김순자 부부의 살림살이 조사보고서이다.
 - 살림살이의 번호는 ‘대분류-공간번호-벽번호-물건의 연번’ 순으로 기록하였다.
 - 공간번호는 인방-뿔방-할머니방-거실-부엌-욕실-다용도실-보일러실-현관-집채 외부공간 순으로 배열하였다.
 - 살림살이 일련번호는 공간과 위치에 따라 주출입구에서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배열하였다. 살림살이 일련번호 구성 : 0-0-0-000
 - 벽 번호는 주출입구에서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1-4번 벽으로 구성하였으며, 바닥 천장은 각각 5번과 6번이다.
 - 집안의 공간 명칭은 제보자가 실제 사용하는 명칭을 활용하였다.
 - 본문에는 전체 살림살이를 나열하기 보다는 그 공간의 주요 살림살이만을 수록하였다.
 - 전체 살림살이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도판으로 제시하였으며, 살림살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DVD에 수록하였다.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1리 뱃불마을

유영춘 · 김순자 부부의 살림살이

심일종

민족문화를 풍성하게 가꾸어온 경북의 민속문화

● 2009년 '경북민속문화의 해' 준비사업으로 경상북도의 향토성 짙은 민속문화의 변화양상과 생활모습을 조사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민속문화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뜻 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북의 민속조사는 2008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적 산간마을인 군위군 부계면 대울리, 해안마을인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2개 마을에 조사자가 10개월간 상주하면서 마을조직의 주요활동, 생업, 의식주, 세시풍속, 종교와 민간 신앙, 일생의례, 구비전승사 등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현존실태 및 변천사를 세밀하게 조사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경북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8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의 전문가들이 특징과 생성배경, 현존실태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심층 조사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를 기록영상물로 제작하여 공중파 방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경북민속의 특성과 가치를 잘 나타냄과 아울러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경상북도는 고대 가야문화, 신라천년의 불교문화, 조선유교의 정신문화가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지역별로 다양하고 독특한 유·무형의 문화가 우리 삶의 모습속에 면면히 전승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재의 18%를 보유하고 있는 등 역사와 세월 속에서 문화를 주도해 왔다는 방증이 곳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성주 한개마을, 봉화 닭실마을 등 민속마을에서 볼 수 있는 양반문화, 동해안을 중심으로 전래되는 어촌문화, 그리고 봉화, 영양, 울진 등에 남아 있는 산촌생활문화 등 다양한 민속문화 자산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민속문화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날 수 없는 것이며, 오랜 기간에 걸쳐 민중의 삶 속에서 탄생한 생활양식입니다. 이러한 민속문화를 재조명하고 기록하여 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과거와 현재에 이어 다가올 미래에 펼쳐질 우리 삶의 줄기를 가장 우리답게 가꾸어가는 정체성 확립의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와 오늘의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이 멀어져 가는 소외된 분야에서 뜻한 바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이 사업을 추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각별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5월 경상북도지사 

산·강·바다와 사람의 어울림

● 우리나라 어느 지역, 어느 마을을 다녀 봐도 아름답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터전도 아름답게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산과 바다가 아름다운 곳, 그 안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아름다운 지역문화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과 소통하는 작업으로 2006년부터 ‘지역 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세 번째 지역인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009년 경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에 2개 지역에 마을민속조사를 시작으로 8개의 주제로 경북 지역의 민속문화를 조사하는 학술조사사업을 하였습니다. 이를 이어 2009년에는 ‘경북 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선포식, 민속조사보고서 발간, 민속마을 현판식, 사진전 등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민속조사는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군위와 영덕에서 상주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군위군 부계면 대울리 한밤마을은 팔공산으로 둘러싸인 돌담이 아름다운 반촌으로 마을 사람들은 논농사와 더불어 사과·마농사를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덕군 축산면 경정1리 사람들은 동해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미역채취, 오징어건조, 대게잡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사자들은 모내기, 야콘 심기, 마 심기, 사과수확, 오징어 말리기, 미역씨 감기, 고동배 조업 등을 함께 도우며 마을사람들과 사계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소소하지만 중요한 일상을 기록·촬영하였습니다. 특히 살림살이 조사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한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꺼내 사용자의 눈을 통해서 재해석·기록하는 과정으로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경북의 민속문화’는 경북의 대표 문화를 8개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현지조사와 연구작업을 토대로 집필되었습니다. 1권에는 ‘영남대로와 낙동강’, ‘선비와 양반’, ‘마을과 문중’, ‘경북 여성의 글하기’를, 2권에는 ‘민속문화로 본 경북의 마을숲’, ‘경북의 술과 음식문화’, ‘나물과 약초의 민속지’, ‘동해안별신굿의 전승 양상’을 담았습니다. 잊혀지기 쉬운 경북 전통문화의 생생한 현상이 전문가의 눈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보고서가 경북의 문화와 경북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 일상의 삶에 ‘이방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주시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북의 산과 강,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헌사합니다. 그리고 책을 발간하기 위해 수고한 지역 연구자와 우리관 민속연구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9년 5월 국립민속박물관장 **신광섭**

